로또 당첨되고도 망하지 않기

(에스더 1:1~22)

1.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백이십칠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2.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 궁에서 즉위하고
3. 왕위에 있은 지 제삼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4. 왕이 여러 날 곧 백팔십 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5. 이 날이 지나매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칠 일 동안 잔치를 베풀새
6.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베 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7. 금 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8.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궁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9.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10. 제칠 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내시 므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일곱 사람을 명령하여
11.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12.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하더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로또 당첨되고도 망하지 않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로또 당첨되고도 망하지 않기'

오해가 있을까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제목은 사행성을 조장하고자 하는 의도가 조금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급작스럽게 막대한 돈에 휩싸이게 된 환경에 대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대

처하는 마음가짐의 예를 통해서 십자가복음을 생활화하는 사람들의 삶을 대하는 태도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 사람들이 일생을 통해 추구하는 가치가 내게 주어지거나 혹은 그러한 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 살아갈 때에 십자가복음을 생활화하는 사람의 태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결말이 하나같이 비참하다고 합니다.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그 돈을 잘 써서 사회에 큰 유익을 안겨주었다는 말은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2002년에 마이클 캐롤이라는 사람은 19살 나이에 170억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평소에 마음먹고 있던 대로 무려 68억을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나누어주고 사회단체에 후원하기도 하며 멋진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돈을 흥청망청 쓰기 시작해서 8년 만에 파산을 해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다가 현재는 과자 공장에 취직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만 되어도 아주 비참한 지경에 떨어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 한 예를 들면 1961년에 복권에 당첨된 비비안 니콜슨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2억 원 복권에 당첨됐는데 지금 시세로는 200억 원에 이르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자 당첨금을 독식하게 되었으니 굉장히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을 흥청망청 원하는 대로 쓰면서 살다가 파산해서 외톨이로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18억 원에 당첨된 김ㅇㅇ씨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다가 연이은 실패로 자살하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다면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고 자신 있어 합니다. 은행에 예금을 하든지 혹은 일부만 주식에 투자하겠다는 생각을 하거나 좋은 일에 쓰면서 살겠다는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언을 해보자면 절대로 안 됩니다. 로또가 당첨되고도 망하지 않는 길은 딱 한 가지 길 밖에 없습니다. 만약 100억에 당첨이 되었다면 그 상황을 마음에서 말살되도록 해야 합니다. 100억을 쓰기도 전에 이미 마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기쁜 상태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한 상태가 되면 그제야 100억의 용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알려질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100억 중에 99억을 기부하고도 나머지 1억으로 기쁠 수 있는 일을 찾는다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제차를 사거나 집을 사서 그 돈으로 기쁨을 누리려 한다면 다 망하고야 말 것이라는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00억을 사용해서 내 마음에 기쁨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시작된다면 반드시 망하고야 맙니다. 100억이 주어져도 그 돈으로 기쁠 필요가 없을 만큼 하늘의 하나님으로 기쁜 상태가 되고, 그 돈을 하나님이 쓰라고 하시는 용도를 따라서 쓸 때에만 로또에 당첨되고도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BC 537년의 1차 포로귀환과 BC 458년의 2차 포로귀환 사이에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인 수산 성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 하만이 왕을 유혹해서 유대인

말살정책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유대민족 전체가 이 지구상에서 없어질 위협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섭리를 통해 왕비가 된 에스더의 활약을 통하여 유대민족이 위기로부터 벗어나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기적적 섭리가 움직이는 시발점을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가 왕이 된지 3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왕 노릇하는 맛을 깨달은 차에 제국은 팽창을 거듭해서 서쪽으로는 인도의 인더스강에 이르고, 동쪽으로는 지중해, 북쪽으로는 흑해, 남쪽으로는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왕이 누릴 수 있는 권력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잔치를 베풀었는데 무려 백팔십 일 동안 계속됩니다. 잔치에 들어가는 모든 시설과 재료들이 성경의 말씀대로 막대했습니다. 나라의 위용과 왕의 위엄과 수산성의 사치스러움이 극에 달한 상태였습니다.

백팔십 일 동안 전국의 모든 관리를 모아서 잔치를 벌인 후에 일주일 동안은 수산성에 사는 모든 일반 백성들까지도 잔치를 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왕이 흥에 겨워서 왕후 와스디에게 내시 일곱 명을 보내서 면류관을 쓰고 연회에 나오라는 명을 전합니다. 그 당시의 보통 가정집의 여자들은 다른 남자에게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술에 취한 왕이 모든 관례를 깨고서 몰상식한 어명을 내린 것입니다.

탈굼(Targums)의 아람어 역본 성경을 보면 이에 대한 주해가 있습니다. 와스디에게 명령을 내릴 때에 “왕후의 면류관만 쓰고 연회에 오되 벌거벗은 몸으로 오라”는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주석에서는 그렇게까지 했겠느냐는 의견이 많지만 저는 그러한 일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왕은 나라의 위용을 과시하기 위한 백팔십 일 동안의 잔치에 빠져있던 상태였습니다. 3년간 왕위를 누리며 이제 왕 노릇의 즐거움이 떨어지던 차였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3년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즐거운 가치는 세상에 없을 그 때에 남들에게 자랑함으로서 재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 자랑을 6개월 동안 했던 것입니다. 왕후 와스디는 페르시아의 넓은 영토 내에서 고르고 고른 아름다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왕후의 벌거벗은 몸까지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왕의 심정이 변태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이즈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공백이 채워져야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아하수에로 왕은 전 세계에서 가장 호화스럽고 가장 광대한 나라의 왕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렸지만 재미가 없어지니 이제는 자기 아내까지 벌거숭이를 만들어서라도 자랑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왕후에게 보냈던 일곱 내시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의 어명이 관례에 어긋났다는 것을 간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나 이들 모두가 함구하고 불합리한 어명을 왕후에게 전하고 왕후는 이 명령을 거절했고 결국 폐위를 당합

니다. 또한 페위시키는 과정에서 신하들과 의논을 할 때에 제국의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거역하게 될 것을 염려합니다. 이것을 볼 때에 왕궁의 화려한 삶이 모든 백성들의 이상향이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이렇게 세상 가치에 함몰되고 선민의 존재감이 사라져버릴 수 있는 위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비유로 하여 설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악한 자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유대민족이 말살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이것을 1장에서 이미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강물이 바다로 모이듯이 이 세상의 누릴만한 가치들은 모두 아하수에로 왕의 궁전으로 모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침 흘리며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수산 궁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곳을 이상으로 삼은 백성들은 똑같이 풍요와 다산을 향해 줄달음질을 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세상의 격랑 속에서 선민의 선민다움은 완전히 함몰되어 자취조차 없어질 수 있다는 위기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마음의 빗장을 열 때에 선민 됨은 사라집니다. 마음 안으로 세상의 가치가 들어올 때에 선민은 하나님을 사랑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100억이 주어져도 100억에 대한 마음의 빗장을 걸어야 합니다. 마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기 위해서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복음의 기도를 드리며 십자가복음을 생활화해야만 합니다. 내 앞에 있는 100억이 아닌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십자가 빗장을 지르는 것입니다. 100억이 없더라도 100억을 벌고 싶어 하는 욕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빗장을 지르는 것입니다.

마치 코르크마개로 봉한 빈 병이 바다에서 100년이 지나도 물 한 방울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지면 좋아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문을 닫아야 합니다. 십자가 코르크마개로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고군분투와 같은 전쟁의 마음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해서 하루하루 살아가지 않는 한 선민 됨은 아하수에로 왕과 수산 궁을 중심으로 퍼져나갔던 세상의 격랑 속에서 말살의 위기에 처하고 말 것입니다.

몇 백억, 몇 천억 짜리 예배당을 지어놓고 목사님과 교인들은 뿌듯해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선민 됨은 없습니다. 오히려 예배당이 전혀 필요치 않을 만큼 하나님으로 온전히 만족한 상황이 되어야 선민 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절대로 마음의 빗장을 열고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행복과 기쁨은 반드시 하늘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돈을 만질 때에도 우선 하늘로 기쁘고 나서 만져야 합니다. 속이 빈 채로 돈을 만지면 복권 당첨금으로 남을 도울지라도 결국은 돈에 휩쓸려 파멸에 이르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드신 것을 보면 아무리 보아도 나사로가 천국에 가게 되고 부자가 지옥에 가게 된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부자는 그냥 부자로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나사로에게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고 해석한다면 예수님의 의도를 완전히 왜곡하는 것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나사로는 부자에 비해서 세상에서 즐거워할 만한 가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사로는 세상으로부터 즐거워하고 기쁨거리를 찾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으로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부자는 세상으로 기뻐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간음이고 죄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단순히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고 하신 제1계명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나머지 아홉 계명을 어기는 것은 제1계명을 어겼을 때에 나타나는 열매일 뿐입니다. 신은 내 마음에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대상입니다.

100억 복권에 당첨이 되어서 그로 인해 즐거워했다면 그 100억이 신이었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형통을 즐거워했다면 자녀가 신이 된 것입니다. 나라가 부강함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면 나라가 신이 된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김으로서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빗장을 질러야 합니다.

에스더서는 민족 말살의 위기를 드러내면서 선민 됨의 말살의 위기를 동시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말살시킬 수 있는 위협의 풍랑은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가장 강대한 나라로서 세상의 모든 가치가 흘러들어오는 수산 궁에 살면서 얼마나 몰상식하고 충동적인 사람이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백팔십 일 동안 잔치를 벌이고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아내를 벌거숭이로 사람들 앞에 자랑하려 했습니다. 2장 1절을 보면 이런 충동적 행동에 대해 후회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바랐던 세상 것이 마음껏 주어질 때 사람들은 오히려 이상하게 변해갑니다. 만족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이즈로 만들어진 마음의 공백은 페르시아 제국의 왕위를 가지고서도 채울 수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변태적인 성정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선민의 하늘 성정과는 반대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든지 선민에게서 나타날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세상에 나가기 전에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으로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고군분투를 생활화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로 마음의 빗장을 지르고 사람들이 침 흘리며 원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담을 쌓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빈 속은 오직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도달할 수 있는 하늘의 하나님 만으로 채워져서 이미 기쁘고 만족한 가운데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